

제주 및 그리스 신화의 도덕성 비교

양 영 수(제주대 명예교수)

1. 인간적인 신과 초인적인 신

제주신화 주인공들이 범하는 부도덕 행위가 그리스신화 주인공들의 그것과 크게 다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제주신화의 주인공들은 아주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흔히 보는 범상한 인간으로 살다가 신으로 변신 승격하는 과정을 거친다. (천지왕 가족들과 용왕국 가족들 및 염라대왕과 저승차사 등 죽은자들 세상에 속한 이들만이 처음부터 인간세계와는 다른 곳에서 사는 것으로 나온다.) 제주신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인간들은 생명과 죽음의 운명, 자연질서에 대한 통제 능력의 한계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에 있어서 현실세계의 인간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 이와 반면에, 그리스신화의 주인공들은 초인적인 능력의 소유자인 신들과 일반적인 인간들로 엄격히 양분된다. 그리스신화의 신들은 영생불사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천둥과 벼락을 치게 하거나 지상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등 자연 질서를 통제할 수 있고, 초인적인 변신과 비상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바다 위를 말 타고 달리는 등 인간의 속성과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점이 제주신화의 신들과 다르다.

그리스신화의 신들은 사랑과 권력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희로애락의 감정을 보이기는 하지만, 생로병사의 고통과 노동의 필요에서 해방된 이들 신은 애초부터 생존경쟁의 사투를 벌일 일이 없다. 인간세상의 최악은 그 대부분이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불가피한 소행이지만, 그리스신들이 범하는 부도덕과 패륜행위는 이와 다르다. 이들의 부도덕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인데 하나는 창세적인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쾌락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되는 인간적인 부도덕의 원인과 다르다. 신들의 부도덕은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신탁 등의 불가지적 요인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동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탐욕의 대상으로부터 유혹을 받거나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인간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환경적인 동기의 최악에 비해 볼 때, 자신의 알 수 없는 욕구와 필연적 운명적인 동기에 기인하는 그리스 신들의 최악은 자책감이나 응징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주의를 끈다.

그리스 신들이 저지르는 필연적인 동기의 부도덕 행위는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창세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쾌락 추구를 위한 것이다. 제우스 및 그

의 조상신들의 경우에는 창세질서의 수립이라는 필연적인 요구가 원인이 되어 불륜패덕의 행위를 저지른다. 제우스 이전의 창세신들 중에는 자기의 모신(母神)과 혼인하고 자기의 부신(父神)을 퇴치하는 경우가 많다. 최초의 남성신 카오스를 내쫓은 것은 그의 아들 신 에레부스였고 그는 모신인 녹스와 혼인한다. 광명의 남성신 아에테르는 자신의 부모인 에레부스와 녹스를 축출한다. 대지의 여성신 가이아는 자신의 아들인 우라노스와 혼인하고, 하늘의 신 우라노스는 조상신 아에테르를 퇴출시키지만 우라노스는 다시 자신의 아들 크로노스에게 왕좌를 뺏긴다. 크로노스에게서 지배신 자리를 뺏은 그의 아들 제우스 신에 와서야 아들 신에 의한 조상신의 축출과 모자간 근친상간 역사가 끝나는데, 우주와 세계의 질서를 창조하는 이들 신의 패륜행위는 그 누구의 응징을 받거나 스스로의 자책감에 시달리는 예가 없다. 우주창조와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추출되는 모자간 투합의 원리와 부자간 배척의 원리는 인간역사에 속하는 영웅시대에 와서 오이디푸스 대왕과 이오카스테 왕비에 의해 나타나는데 인간시대에 와서는 이 같은 패륜행위가 가혹한 응징과 자책의 대상이 되는 점이 주의를 끈다.

그리스신들이 저지르는 '필연적인' 동기의 부도덕 행위 중에 쾌락 추구형의 것은 주로 신들간의 연애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진다. 제우스 신은 헤라의 감시를 피해 혼외정사를 즐기기 위하여 수많은 여신과 여인들을 납치하거나 유인한다. 헤라 여신은 남편의 연애사건에 관여한 요정이나 인간들에게 가학적인 복수를 행한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순결성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서로 시샘하고 불화하는 가운데 여러 요정이나 인간들로 하여금 사랑과 정절의 기로에서 반목과 불화의 비극을 겪게 만든다.

제주신화에서는 그리스신화에 비해, 내재적인 인간성과 초월적인 신성 사이의 경계선이 매우 약하다. 천지왕과 같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주신화의 신들은 그리스신화에서와 같은 초인적인 신이 아니라 인간세계에서 흔히 보는 인간적인 신인 것이다. 제주신화에서는 처음부터 영생불사의 초월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신이 되는 것이 상례이며, 나중에 신이 되는 인간들은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은 다음에나 초월적인 신의 속성을 지니지 않는다. 인간으로 살아있는 동안과 죽어서 신이 된 다음의 인신적(人神的)인 속성이 별로 다르지 않음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본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의 죽음은 이 같은 제주신화 주인공들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설문대는 살아있을 동안 (그 육신이 크고 힘이 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간적인 속성을 갖고 살다가 인간처럼 죽어간다는 것이 그리스신화의 영생불사적 신들과 다르며, 죽어간 다음에는 (죽 솥에 녹아있던 그 육신이 제주 섬의 산하로 변신되었다는 점에서) 지상의 다른 생명체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인간과 신, 삶과 죽음은 결국 하나의 질서의 다른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이 제주신화라는 말이다. 삶과 죽음의 질서가 더욱 큰 틀 안에서는 동일한 것이고 삶의 연장이 죽음이라는 말은, 조상들이 죽어가서 (귀)신이 되어 후손들을 보살펴 준다는 제주인의 오래된 조상신 관념과 상통하는 것이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혼령이 마을 당신이 된다는 관념과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죽어가서' 신이 된다는 명백한 표현이 부재하는 일반본풀이의 인신적인 내력담에서 결락된 부분을 보충 해석하는 길

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일부의 본향본풀이와 조상신본풀에는 인간이 죽어가서 신이 된다는 명시적인 표현들이 있다. '(여섯째 아들이 충성을 크게 울리며 들어오자) 아버지는 겁이 나서 알송당 고부니 마을로 도망가다 죽어 당신(堂神)이 되고, 어머니는 겁이 나서 도망치다가 웃송당 당오름에 가 죽어 당신이 되어--' <송당리 본향본풀이>

제주신화와 그리스신화를 비교할 때, 초인적인 신의 존재 여부는 영웅적인 인물의 성격 설정에서 상이한 양상을 낳고 있다. 초인적인 신이 등장하는 그리스신화의 스토리에는 인간의 삶의 가능성을 최대로 확대하고자 하는 신화작가들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여겨지거니와, 영웅적인 인간들이 초인적인 능력을 지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도 그들의 이 같은 염원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페르세우스, 이아손, 테세우스, 헤라클레스, 아킬레스 등의) 남성 영웅들은 초인적이라 할 정도의 비상한 체력, 담력, 의지력, 인내력과 무술을 지니는 것으로 나온다. 또한, (아리아드네, 메데아, 스킨라, 코마이토 등의) 여장부들은 자신이 택한 남성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조국과 부모를 배신하고 죽음을 불사한다는 점에서 사랑 에너지의 영웅이라 할 수 있다. 제주신화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남성과 강한 사랑 에너지를 가진 여성들이 등장하지만 그 양상은 세상에서 흔히 보는 성격 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에 '초인적'이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2. 인간적인 부자유와 초인적인 자유

1) 부도덕 사례의 비교

가) 제주 및 그리스신화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부도덕; 탐욕에 의함

(1)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부정한 축재 행위

#<천지왕본풀이>에서, 총명부인에게 모래 섞인 쌀을 꾸어주는 수명장자의 소행(현용 13)

(2) 경쟁자가 성공하는 것을 시샘하여 해코지 하는 행위

#<초공본풀이>에서 삼천선비는 잿부기 삼형제가 장원급제하는 것을 시기하여 간악한 모략, 흉계로써 이들을 낙방케 하고 삼형제와 그 모친을 생이별시키는데, 뒤늦게 생부와 쇠철이 아들의 도움을 얻은 삼형제는 생모와 상봉한 다음에 칼을 휘둘러 삼천선비들을 죽임으로써 복수한다(현용 56-62).

(3) 자신의 지위나 처세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해치는 행위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마마신[마누라신]인 대별상은 생불왕[출산신]인 삼승할망[명진국따님아기]의 역할을 알보고 자신의 권능을 과신한 나머지, 삼승할망이 출산시킨 아이들의 얼굴을 뒤옹박 같이 엷게 만들어 버리자, 삼승할망은 이에 대한 복수로 대별상의 처인 서신국마누라에게 사경을 헤매는 해산의 고통을 안겨준다(현용 33-5).

#<이공본풀이>에서 제인장재(子賢長子)는 남편과 헤어진 원강아미의 불행한 처지를 이용하여 욕정을 채우려고 간교한 유혹을 걸지만 이에 실패하자 그녀를 살해하는데, 나중에

그는 서천꽃밭에서 멀망꽃을 가져온 할락궁이에게 죽음을 당한다(현용 75-76).

#<삼공본풀이>에서 가든장아기의 부모인 강이영성과 홍은소천은 막내딸이 자기 언니들과는 달리 부모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쫓아내며, 이들의 첫째와 둘째 딸은 동생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부모가 그녀에게 전하는 말을 왜곡시켜서 전한다(현용 79-81).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자신을 희롱한 하인 정수남이가 패섬하여 자기 무릎에 잠들게 한 후 청미래덩굴로 귀를 찢러 죽게 한다(현용 173).

#<문전본풀이>에서 노일저대 딸은 아둔한 남선비를 유혹하여 재산을 빼앗으며 그의 부인을 연못으로 유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스신화에서 이에 해당되는 사례의 주인공들: 시지푸스, 벨레로폰, 파에톤, 아라크네, 악타이온, 다이달루스, 아가멤논 등.

나) 그리스신화에서만 일어나는 인간의 부도덕; 근친간의 패륜행위

그 사례들: 오이디푸스의 부친 살해 및 모자간 근친상간, 탄탈루스의 아들 살해, 시니라스와 미라 사이의 부녀간 근친상간, 아가멤논 가(家)의 근친상간 및 근친살해 사례들 등.

다) 제주 및 그리스신화에서 일어나는 신들의 부도덕; 창세질서의 수립과정에서 일어남

(1) 힘과 지혜를 겨루는 신들의 권세 다툼에서 부정확한 방법으로 승리하는 행위

#<천지왕본풀이>에서, 수수께끼와 꽃 피우기 경쟁에서 짐으로써 저승세계를 다스려야 할 천지왕의 작은아들 소별왕이 '좁 심백'으로 승부를 가르자는 제안을 가지고 형을 기만하여 이승세계를 차지함(현용 16-9).

(2) 부모가 자식을 쫓아내거나 자식이 부모를 쫓아내는 행위

#<용왕국할망본풀이>에서 동해용궁의 용왕은 셋째 딸 아기가 (아버지 수염을 뽑는 등) 불효하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다가 부인의 만류를 받고 석함 속에 넣어 바닷물에 띄워버린다.

#<송당본풀이>에서 소천국은 그의 부인 백주또가 홀몸으로 키워놓고 데려온 아들을 애비에게 어리광 부린다는 이유로 무쇠석갑에 넣어 잠그고는 동해바다에 띄워버린다.

#<송당본풀이>에서, 천자국에서 무공을 세운 궤내깃한집은 소섬과 종달리를 거쳐서 비자림에 자리잡고 방포일성을 놓음으로써 아버지 소천국과 어머니 백주또가 달아나다 죽어서 당신이 되게 한다.

*그리스신화에서 이에 해당되는 사례들: 에레부스(암흑)와 녹스(밤) 사이의 모자간 근친상간, 우라노스(하늘)와 가이아(땅) 사이의 모자간 근친상간, 크로노스(시간)에 의한 부신(父神) 우라노스 가해, 제우스에 의한 부신 크로노스 축출과 근친상간,

라) 그리스신화에서만 일어나는 신들의 부도덕; 자신의 쾌락을 추구함

그 사례들: 제우스 신이 여성신 및 여성 인간과 벌이는 혼외정사, 아프로디테나 아폴로 신이 벌이는 자유분방한 연애행각, 디오니수스 신이 벌이는 광란적 파괴적인 음주와 가무 연회

이상에서 살펴본 바, 제주신화 및 그리스신화에서 인간과 신이 범하는 부도덕 행위 사례의 분류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부도덕		신들의 부도덕	
1) 제주 및 그리스신화	2) 그리스신화	3) 제주 및 그리스신화	4) 그리스신화
이기심과 탐욕에 의한	근친간의 쾌락행위	창세질서의 수립과정	신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함

2) 인간의 도덕성과 신들의 초도덕성

제주신화와 그리스신화 주인공들의 부도덕 행위가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초인간적인 신의 존재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스신화에서 인간세계의 지배자로 등장하는 초인간적인 신들은 인간에 비하여 훨씬 더 자유롭고 대담한 부도덕 행위를 범하는데 이 같은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의 도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인간으로서 어찌 이러한 쾌락 행위를 저지를 수 있을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초인적’이라는 형용이 어울릴 정도의 쾌락함을 보여주는 인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제주신화의 주인공들 가운데에는 초인적인 신들의 존재가 미약하고 거의 명목상으로만 신이라 불리우는 극히 인간적인 주인공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도덕함도 범상한 인간성의 범위를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운명적인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초인적인 그리스신들은 그들의 부도덕을 비난하거나 징벌할 존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부도덕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징벌은 죽음인데 어떤 부도덕 행위를 해도 죽지 않는 그리스신들은 도덕적으로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들의 무한한 자유와 극한적인 부도덕 가능성을 생각해내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상상력은 인간세계에 있어서도 도덕적 규제에서 풀려나는 무한한 자유를 그려봄직 하다. 그리스신화에서 똑똑하지만 오만한 인간들의 스토리 가운데에는 신들의 무한한 자유를 선망하여 이를 탐하다가 무참한 불행을 당하는 예가 많은 것이다.

출생 방식이나 타고난 성격에서 매우 인간적인 제주신화의 신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과욕에 의한 부도덕성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응징을 받는 것이 상례이지만, 창세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생기는 부도덕 행위에 대해서는 통념적인 응징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주의를

끈다. 소별왕의 거짓말 부도덕은 그가 통치하게 될 이승세계의 속성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를 응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자식을 버리는 부모나 부모를 내쫓는 자식이 응징 받지 않음은, 이 같은 본풀이 스토리에 나타난 것이, 부모가 아무리 요구하고 싶어도 자식의 영원한 효도봉행을 바랄 수 없다는 생명의 순환법칙, 즉 창세 질서의 구현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신화에서는 신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부도덕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 같은 요소는 제주신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제주신화에서 신들의 존재방식은 곤고한 인간의 삶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봉제사의 치성드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들 자신의 쾌락 추구에 따르는 부도덕 행위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신화에서 자신의 탐욕에 따라 사랑과 미움과 다툼의 세월을 보내는 하늘나라의 초인적인 신들은 부도덕 행위를 범하지만 이는 응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주신화와 그리스신화에서 인간이 범하는 부도덕 행위를 비교할 때, '인간적인' 이기심과 탐욕에 따른 것은 두 지역 신화에 공통되는 것이고, 근친간의 패륜과 같이 '비인간적'이고 자기모멸적인 부도덕은 그리스신화의 인간들에 의해서만 자행되고 있다. 이기심과 탐욕에 따른 부도덕이 두 지역 신화에서 공통된다고는 하나, 그리스신화에서는 초인적인 신의 지위를 시샘하고 이에 도전하는 오만과 과욕이 인간들 사이의 부도덕보다 더 큰 죄악을 낳고 있으며, 이 같은 오만과 과욕은 가차없이 죽음의 응징을 받고 있음이 특기할 만하다. 제주신화의 인간 주인공들이 신의 지위를 탐하는 예는 없으며, 이들의 부도덕은 인간들 사이의 생존경쟁이 낳는 인간적인 이기심과 욕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근친상간이나 근친살해와 같은 패덕무도함으로 빚나가지 않는다.

그리스신화의 인간들이 범하는 근친간의 패덕행위는 그 유형들 대부분이 초인적인 신들에 의해서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것인데, 신들의 근친간 패덕행위는 응징 대상이 아니 되고 인간의 그것은 가혹한 응징을 받는다. 인간의 패덕행위가 응징 받는 방법은, 자신의 죄악을 뒤늦게 깨달은 죄인 자신의 자책과 자멸에 의한 것도 있고, 신들의 인간지배 방식의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이들 방법은 신탁(神託; oracle)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스신화에서 신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허용되는 행위가 인간에게는 준엄한 금기사항으로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스신화에서 신들에 의해 자행되는 패덕행위가 인간의 부도덕 행위의 범위를 넓혀놓았다는 추정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제주신화에서처럼 비인간적인 쾌락을 자행하는 신들이 동일한 신화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부도덕 행위가 인간적인 이기심과 탐욕에 따르는 유형에 그쳤을 것이라는 상정인 것이다. 그리스신화에서 인간에 의한 부도덕 행위의 유형을 확대시켜 놓은 것은 무한한 부도덕의 자유를 누리는 초인적인 신들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그리스신화에서는 초도덕적인 신들의 존재가 인간의 도덕성 구조에 대해 영향을 끼쳤음에 반해서, 제주신화에서는 초인적인 신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덕성의 바탕을 흔들어놓을 초도덕성의 세계가 부재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